로어본문을 이루는 문장들이 련결수단의 류형에 대한 분석

최 금 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체는 교제분야와 목적에 맞게 표현적효과를 높일수 있게 하는 문체론적수단과 수법의 체계입니다.》(《김정일전집》제3권 130폐지)

본문을 이루는 문장들이 어떤 련결수단들에 의하여 련결되는가를 밝히는것은 본문을 정확히 리해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로어본문을 이루는 문장들의 련결수단의 류형에 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무엇보다먼저 로어본문을 이루는 문장들의 형태적련결수단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형태적련결수단은 언어접속형식에 의한 련결수단으로서 여기에는 접속사가 있다.

로어문장들사이의 련계를 나타내는데서 가장 많이 쓰이는 병렬접속사들은 и, HO이다. 접속사 и는 로어본문을 형성할 때 진술발전의 연장성이나 순차성의 의미를 나타내면 서 본문의 문장들을 련결시키거나 본문의 맺음부문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때 접속사 N는 우리 말로 《그리하여》로 번역된다.

례: Когда порабощена страна, не может быть спокойствия и для народа и для самой природы.

Под крышей порабощенной страны не могут спокойно спать даже предатели, которые живут в роскоши за счёт проданного отечества.

 $\underline{\mathbf{W}}$ хотя люди живут, но их положение хуже, чем собаки, шляющейся во дворе дома усопшего.

(나라가 식민지화되면 사람도 산천도 편안할수 없다.

식민지로 된 나라의 지붕아래선 조국을 배반한 덕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반역 자들도 결코 발편잠을 잘수 없다.

비록 사람은 살아있어도 그들의 처지는 상가집 마당에서 빈둥거리는 개만도 못하다.)

우의 실례에서 마지막문장의 앞에 놓인 접속사 N는 련결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리고》 가 아니라 본문의 맺음부분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리하여, 따라서》로 번역된다.

접속사 HO는 접속사 μ와 기능상 대립된다. 즉 앞선 진술의 방향을 변화시켜 진술을 다른 방향에로 이끌어간다. 이때 접속사 HO는 우리 말로 《그러나, 그런데》로 번역된다.

다음으로 로어본문을 이루는 문장들의 어휘적련결수단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어휘적련결수단들은 형태적련결수단들과는 달리 본문을 이루는 개별적문장들에서 일정한 문장론적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어휘적련결수단에는 끼움말, 의미중심적어휘, 대명사, 조사, 단어반복, 시간과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나 단어결합, 뜻같은말과 뜻반대말, 순서적의미를 나타내는 단어, 표제, 부름말이 속한다.

끼움말은 문장에서 이야기되는 사실의 출처나 그에 대한 보충적설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끼워넣는 보충적인 련결수단이다.

到: У друзей наших были особые привычки, даже как бы специальности. <u>Например</u>, Терентий Бочкин очень любил писать, и почти всегда в этих письмах преобладали у него сведения 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우리 친구들의 습관은 특별하였는데 마치도 그것이 전문인것 같았다. 실례로 째 렌찌 보츠낀은 글쓰기를 대단히 좋아하였는데 그의 거의 모든 글들에서 기본은 경제질서에 대한 내용들이였다.)

의미중심적어휘는 로어본문을 이루는 다른 문장들을 의미적으로 전개해주고 통일시키는 어휘이다. 의미중심적어휘에 의하여 본문의 문장들이 그 중심적어휘를 설명하면서 전개되여 하나의 본문을 이루게 된다.

利: <u>Наступила поздняя осень.</u> Редко светит осеннее солнышко. Часто идёт мелкий дождь.

(늦은 가을이 왔다. 가을날의 해는 드문히 비치군 하였다. 자주 보슬비가 내리군 하였다.)

우의 실례에서 첫 문장은 《Наступила поздняя осень.》이라는 의미중심을 나타내는 데 세개의 문장은 이 의미중심에 의하여 련결된다.

로어본문을 이루는 문장들은 대명사에 의하여 련결되면서 하나의 전일체를 이룬다. 여기에서 쓰이는 대명사들은 앞문장의 내용이나 앞문장의 어느 한 성분을 나타낸다.

례: Прижимая к груди букет пушистых гвоздик, девочка улыбнулась. <u>Такая</u> улыбка может растопить даже ледяные торосы враждебности и недоверия. (털이 보르르한 패랭이꽃다발을 가슴에 꼭 대고 소녀애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지어 적의와 불신의 얼음산도 녹일수 있는 미소였다.)

우의 실례에서 두 문장은 지시대명사 《Takan》에 의하여 련결된다.

례: Народ-простой, умеет говорить образно. <u>Он</u> ценит и чувствует-иной раз даже сам того не сознавая, звуковую окраску слова.

(사람들은 평범하다고 해도 형상적으로 말할줄 안다. 사람들은 때로 자기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단어의 말소리뜻빛갈에 대해 평가하며 느끼군 한다.)

우의 실례에서는 두 문장이 인칭대명사 《OH》에 의하여 서로 뗼수 없이 련결된다.

로어본문을 이루는 문장들은 조사와 단어반복에 의하여서도 련결된다.

문법적기능을 수행하는 전치사와 접속사들과는 달리 조사는 단어들과 문장성분들 혹은 전체 문장의 각이한 의미적수요를 나타내는데 쓰인다.

례: Все не знали. \underline{U} я не знал, где он.

(모두는 모르고있었다. 나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우의 실례에서는 강조조사 《N》에 의하여 두 문장이 련결되였다.

로어본문을 이루는 문장들은 시간과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나 단어결합에 의하여서도 련결된다. 시간과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나 단어결합은 같은 시간적의미, 같은 장소적의미, 같은 방향적의미를 나타내면서 문장들을 련결시킨다.

到: Моя семья живёт <u>в Пхеньяне</u> недавно. <u>Здесь</u> у нас небольшая, но хорошая квартира. <u>В квартире</u> есть спальня, столовая, кабинет, ванная, туалет, кухня и передняя.

(우리 가정이 평양에서 살기 시작한것은 오래지 않다. 여기 우리 집은 그리 크지 않지만 좋다. 집에는 침실, 식사칸, 서재, 목욕실, 위생실, 부엌과 전실이 있다.) 로어본문을 이루는 문장들은 어휘적 및 문맥적뜻같은말과 뜻반대말에 의하여서도 련결되다.

뜻같은말은 앞에서 나왔던 단어나 표현이 뒤에서 반복되는것을 피하면서 내용상 공통 성의 측면에서 본문의 문장들을 런결한다.

ы: Меня всегда пленял дар Андроникова-артиста. <u>Талант</u> его необычен и являл себя с особенным блеском, когда выступал Андроников не в большом зале, перед сотнями, и не на экране телевидения, перед миллионами, а в комнате, перед двумя-тремя много десятью людьми.

(나는 항상 배우 안드로니꼬브의 재능에 매혹되군 하였다. 그의 재능이 류달리 그리고 특별히 훌륭하게 나타날 때는 안드로니꼬브가 큰 강당에 있는 수백명의 사람들이나 TV영사막앞에 있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앞에서가 아니라 방안에서 20~30여명의 사람들앞에 출연할 때이다.)

우의 실례에서 어휘적뜻같은말들인 《дар》와 《талант》에 의하여 본문의 문장들이 서로 런결되다.

뜻반대말은 앞문장의 내용과 뒤문장의 내용을 맞세움관계로 대조하거나 강조하면서 본 문의 문장들을 련결한다.

례: У каждого времени—своя жестокость. <u>А доброта</u> одна на все времена. (매 시대에는 그 시대에 따르는 가혹성이 있다. 그러나 선량한것 하나만은 어느 시대에나 다 있는 법이다.)

우의 실례에서 뜻반대말인 《жестокость, доброта》에 의하여 본문의 문장들이 련결되다.

로어본문을 이루는 문장들은 순서적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나 단어결합에 의하여서도 련결된다. 순서적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나 단어결합은 문장들사이의 차례, 순서를 찍어서 나타내면서 문장들을 련결한다.

이러한 어휘들로는 《прежде всего, затем, после этого, наконец, сначала, потом, во-первых, во-вторых》 등이 있다.

로어본문을 이루는 문장들은 표제와 부름말에 의하여서도 련결된다.

부름말은 문장이나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인물이나 대상을 나타내는 문법적으로 자립적이고 억양에 있어서 독자적인 구성요소이다.

부름말이 주격형태의 명사와 그에 종속되는 단어들로 표현된다.

레: <u>О, народная литература</u>! Я преклоняюсь перед тобой.

(아, 인민문학이여! 내 그대앞에 머리를 숙이노라.)

회화어에서 부름말은 대화자의 일정한 주의를 끌기 위해 쓰인다.

례: ① Дети! Что вы делаете?(동무들! 동무들은 뭘 합니까?) Идите в комнаты.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② Андрюша! И ты здесь! Вот неожиданная встреча. (안드류샤! 너 여기 있구나! 참 뜻밖이구나.)

언어행위에서는 개별적인 문장만으로는 진술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수 없고 오직 문 장들의 결합으로써만 보다 완결된 사상을 나타낼수 있다. 다음으로 로어본문을 이루는 문장들의 론리적 및 문체론적련결수단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론리적 및 문체론적련결수단이란 문장들을 론리—문체론적으로 련결시키는 수법에 쓰이는 수단들을 말한다. 그러한 수법에는 문답식련결, 속담식련결, 부정식련결, 꼬리잡이식련결, 대구식련결, 점충식련결, 렬거식련결, 비유식련결 등이 속한다.

문답식련결이란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본문의 문장들이 련결되는 수법이다.

Под влиянием какого чувства решается человек без видимой пользы подвергать себя опасности и, что ещё удивительнее, убивать себе подобных? Мне всегда хотелось думать, что это делается под влиянием чувства злости; но нельзя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бы все воюющие беспрестанно злились.

(어떤 감정의 영향으로 하여 사람이 특별한 리득이 없이도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 거나 더욱 놀랍게는 그러한 일로 자신이 죽을 결심을 할수 있는가? 나는 항상 이 것이 악이라는 감정의 영향으로 벌어진다고 생각하고싶다. 그러나 끊임없이 싸우 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품었다고 생각할수는 없다.)

우의 실례에서는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두 문장이 통일체를 이룬다.

이러한 현상은 대화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례: Γ Де здесь можно пообедать? (여기 어디에서 점심식사를 할수 있습니까?)

- Недалеко отсюда есть хороший ресторан.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 Может быть, пообедаем сейчас? (이제 점심식사를 할가요?)
-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шли! (예! 갑시다!)
- Где же меню? (음식차림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 Вот здес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나의 대화본문을 이룬다.

부정식련결이란 부정적수법을 리용하여 본문의 문장들을 련결하는 수법이다.

례: Но не только о трудностях вспоминают сегодня.

Больше всего запомнился небывалый энтузиазм, чистота челове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그러나 오늘날 난관에 대해서만 추억하는것은 아니다.

제일 추억에 남는것은 불타는 열정과 깨끗한 인간관계들이다.)

꼬리잡이식련결이란 본문의 문장들이 꼬리잡이수법으로 련결되는것을 말한다.

꼬리잡이수법은 앞문장의 꼬리에 있는 단어나 단어결합을 다음 문장의 앞머리에서 넘 겨받아 론리적순차성을 보장하는 수법이다.

司: Богатые захватывали бедных. Бедные шли работать на земли богатых. Богатые стали эксплуататорами.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군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의 밭으로 일 하러 간다. 부자들은 착취자로 되였다.)

우의 실례에서 세 문장은 호상 넘겨주고 넘겨받으면서 긴밀히 련결된다.

대구식련결이란 본문의 문장들이 대구법으로 련결되는것을 말한다.

대구법은 서로 대응관계에 있는 두가지 사실이나 현상들을 짝을 맞추어놓음으로써 표 현적효과를 높이는 문체론적수법이다.

례: Павшие умели побеждать.

Живые обязаны помнить.

(렬사들은 승리를 위해 숨졌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한다.)

점층식련결이란 본문의 문장들이 점층법으로 련결되는것을 말한다.

점충법은 내용이 점차 확대되는 문장을 배렬해나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Гроза надвигалась. Впереди огромная лиловая туча медленно поднималась из-за леса; надо мною и мне навстречу неслись длинные серые облака; ракиты тревожно шевелились и лепетали. Душный жар внезапно сменился влажным холодом; тени быстро густели.

(소낙비가 몰려오고있다. 앞에서는 거대한 보라빛비구름이 서서히 숲너머에서 솟아오르고있었다. 머리우에서 그리고 나를 향해 길다란 재색구름이 몰려왔다. 애어린 버들가지들은 불안스럽게 떨고있었다. 숨막힐듯 한 무더위는 삽시에 눅눅한 추위로 바뀌였다. 그림자는 빨리도 짙어졌다.)

우리는 로어본문을 이루는 문장들의 련결수단과 수법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에게 로어본문을 조직하고 분석하는 실천능력을 키워주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